

『東人詩話』를 통해 본 語와 意의 문제

허경진* · 박 순**

차 례

- I. 문제 제기
- II. 전체 용례 보기
- III. 語와 意
 - 1. 語가 쓰인 경우
 - 2. 意가 쓰인 경우
 - 3. 語와 意가 함께 쓰인 경우
 - (1) 한 단어처럼 쓰인 예
 - (2) 구분되어 쓰인 예
- IV. 『동인시화』에 쓰인 語와 意의 의미
 - 1. 語의 의미
 - 2. 意의 의미
 - 3. 語와 意가 함께 쓰였을 때의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서거정의 『東人詩話』에서는 語와 意 개념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시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졌다. 語와 意에 관한 인식은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화 비평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語·意 개념을 드러내었는데, 『동인시화』에서는 전대 시화집들보다 더욱 풍부하게 語와 意를 활용한 비평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語와 意가 비중 있게 쓰였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면 이것이 시 비평의 준거로써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그 쓰임새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인시화』에 드러난 語와 意의 문제를 천착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동인시화』 속에서 語와 意가 쓰인 모든 예를 표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인시화』 속에서 語·意 개념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語와 意가 쓰여 비평이 행해진 예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語가 쓰인 경우’와 ‘意在 쓰인 경우’, 그리고 ‘語와 意가 함께 쓰인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 『동인시화』에서 語와 意가 쓰인 양상을 정리하였다.

語의 경우는 言, 詞, 辭, 詞語가 통용되어 쓰였는데 이들은 ‘작자의 표현’, ‘시어의 운용’(혹은 ‘표현 방식’), ‘시어’의 의미로 쓰였으며, 意의 경우는 ‘사상과 감정’, ‘意象’이란 의미로 쓰였다. 한편 語와 意在 詞意, 語意, 言意의 형태로 한 단어처럼 쓰인 예가 있는데, 대부분 ‘말의 뜻’, 즉 意(사상과 감정)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말과 뜻(표현과 사상·감정)’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다. 語와 意在 함께 쓰였지만 구분되어 나타나는 예도 있다. 이런 경우에 語는 ‘표현’의 의미로, 意在 ‘사상과 감정’의 의미로 각기 변별되어 쓰였다.

주제어 : 『東人詩話』, 語, 意, 표현, 시어, 사상, 감정, 意象

I. 문제 제기

1474년에 간행된 徐居正의 『東人詩話』는 우리나라에서 ‘詩話’라는 명칭을 처음 쓴 최초의 순수 시화집으로 한국 한시비평사에서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¹⁾ 이러한 까닭에 『동인시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은 用事論, 氣象論, 效用論 등에 주목하여 서거정의 문학관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것²⁾이며, 『동인시화』에 드러난 語와 意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지 않았다. 말[語]과 뜻[意]은 시의 가장 중추적인 두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서거정이 시를 평할 때에도 語·意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자.

김구의 시는 말[語]이 공교롭긴 하나 뜻[意]이 얇고, 天水寺에 있는 시는 뜻[意]은 깊으나 말[語]이 막혀 있으니 시를 좋아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³⁾

1) 일본에서는 1920년에 『日本詩話叢書』 10卷(池田魯州 編, 『日本詩話叢書』, 文會堂書店, 1920)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조선 시화집으로는 유일하게 『동인시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 해제의 말미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주로 고려의 시를 품평하면서 때로 당나라 사람의 작품에 미쳤고, 의론이 평온하면서 과격한 데로 흐르지 않아 조선의 시화 가운데 백미로 칭해짐이 마땅할 것이다(此書は主として高麗の詩藻を品隲したるものにして、時には唐人の作に及べり、議論平穩にして、絶えて矯激に流れず、朝鮮の詩話中に在つて白眉と稱すべきものとす。)。” 한편, 중국에서는 2006년에 『域外詩話珍本叢書』 20冊(蔡鎮楚 編, 『域外詩話珍本叢書』, 北京圖書館出版社, 2006)이 간행되었는데, 해제에서 『동인시화』를 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인시화』는 일종의 중국 전통 시화의 형태가 조선 시단에 출현한 것으로써, 뒤따라 조선 시화 창작의 신국면을 열어주었다(《東人詩話》以一種中國傳統詩話的姿態出現於朝鮮詩苑, 從而開創了朝鮮詩話創作的新局面。).”

2) 대표적인 예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조종업, 「東人詩話 研究」, 大東文化研究 2집, 1966.

김형대, 「東人詩話 研究」, 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

여진호, 「東人詩話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권오진, 「東人詩話 研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한인석, 「徐居正 文學 研究 -東人詩話を 중심으로」, 단국대(박사), 1989.

이종건, 「徐居正의 詩文學觀」, 『한국의 한문학』 2권, 민음사, 1991.

안병하, 「徐居正의 文學觀과 東人詩話」, 韓國漢文學研究 16집, 1993.

3) 『東人詩話』上 39. “金詩語工而意淺, 天水詩意深而語滯, 好詩者當辨之.” 본고의 底

『동인시화』에서는 이와 같은 비평문이 도처에 보인다. 시를 비평하면서 ‘語’라는 개념과 ‘意’라는 개념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서거정은 작품의 실제 비평에서 語와 意의 측면을 중시하였는데, 語와 意에 관한 인식은 시화 비평사에서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嚴羽의 『滄浪詩話』에 보이는 내용이다.

시의 뜻[意]은 투철함을 귀하게 여기므로 신발 위로 가려운 곳을 긁듯이 해서 안되고, 시의 말[語]은 깔끔함을 귀하게 여기므로 진흙탕을 가듯이 질척거리서는 안된다.⁴⁾

語와 意를 분명히 개념화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鍾嶸의 『詩品』과 歐陽修의 『六一詩話』에서도 이러한 점은 확인된다.

(沈約의 시는) 말[詞]⁵⁾은 范雲보다 치밀하지만, 뜻[意]은 江淹보다 알다.⁶⁾

梅堯臣은 늘 나에게 말하였다. “시를 쓰는 사람은 비록 자연스럽게 자신의 뜻[意]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말[語]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시의 뜻[意]이 새롭고 말[語]이 공교하면서도 앞 시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바를 써내어야 비로소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⁷⁾

本은 <徐居正, 『(影印本) 東人詩話』, 二友出版社, 1980.>으로 하였다. 구두점과 번역은 <박성규 역주, 『동인시화』, 집문당, 1998.>, <권경상 역주, 『東人詩話』, 다운샘, 2003.>, <成百曉 譯註, 『四佳名著選』, 이희문화사, 2000.>을 참조하였다.

4) 『滄浪詩話』 詩法 9則. “意貴透徹, 不可隔靴搔癢. 語貴脫洒, 不可拖泥帶水.” 원문과 번역은 <郭紹虞 교석, 김해명·이우정 옮김, 『창랑시화』, 소명출판, 2001.> 194쪽 참조.

5) 여기서의 詞는 ‘작품 표현상의 修辭’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語와 통용될 수 있다.

6) 『詩品』 中品 “詞密於范, 意淺於江也.” 원문과 번역은 <鍾嶸, 이철리 역주, 『역주 시품』, 창비, 2007.> 369쪽 참조.

7) 『歐陽修全集』 <詩話> 12則, “聖俞常語予曰, 詩家雖率意, 而造語亦難. 若意新語工, 得前人所未道者, 斯爲善也.”

이처럼 語와 意에 대한 개념이 있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화 비평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각 시화집마다 하나씩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무릇 시는 뜻[意]으로 주를 삼으니 뜻[意]을 세우기가 가장 어렵고 말[辭]⁸⁾을 엮는 것은 그 다음이다.⁹⁾

兪升근은 말[語]이 굳세고 뜻[意]이 순박하며 用事하는 것이 정밀하고 간결하다.¹⁰⁾

先君께서 山谷集을 열람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옛날 江都에 있을 때 先達 李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를 지으면 말[詞]이 엄정하고 뜻[意]이 새로웠으나 用事が 험박하여 당시에 숭상하는 바와 배치되었다.’¹¹⁾

『동인시화』 또한 이러한 앞 시대 시화집들의 語·意 개념을 이어 받았으며, 전대 시화집들보다 더욱 풍부하게 語와 意를 활용한 비평을 보여준다. 즉, 語·意 개념이 폭 넓게 활용되면서 각각의 시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語와 意가 비중 있게 쓰였다면 이것이 시 비평의 준거로써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그 쓰임새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인시화』에 드러난 語와 意의 문제를 천착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인시화』속에서 語와 意가 쓰인 모든 예를 표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이는 『동인시화』 전체에 걸친 일종의 색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인시화』속에서 語·意 개념이 열

8) 여기서의 辭는 語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 보이는 詞도 그렇다.

9) 李奎報, 『白雲小說』 26則, “夫詩以意爲主, 設意最難, 綴辭次之.” 『東國李相國集』 <論詩中微旨略言>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10) 崔滋, 『補閑集』 卷中, 3則. “兪文安公升근, 語勁意淳, 用事精簡.”

11) 李齊賢, 『櫟翁稗說』 後集1, 26則. “先君閱山谷集因言. 昔在江都, 有先達李湛者, 爲詩詞嚴而意新, 用事險僻, 與當時所向背馳.”

마나 많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語와 意가 쓰여 비평이 행해진 예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語가 쓰인 경우’와 ‘意가 쓰인 경우’, 그리고 ‘語와 意가 함께 쓰인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살핀다. 이렇게 면밀한 분석을 거친 후 앞에서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동인시화』에서 語와 意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II. 전체 용례 보기

『동인시화』 속에 보이는 語와 意의 모든 용례를 도표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였다. 첫째,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쓰인 語와 意의 용례는 제외하였다. 즉, 시를 비평하는 용어로 語와 意가 쓰였을 때에만 표 안에 넣었다. 둘째, 語의 경우는 言, 詞, 辭, 詞語가 통용되어 나타나므로 이들을 대등하게 포함시켜 다루었다. 3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語와 같은 기능을 하며 쓰인 용어들의 예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시의 원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를 소개하는 본문의 문장을 따옴표 안에 인용하였으며, 소개 문장도 없는 경우 ‘(未詳)’으로 표기하였다.

<『東人詩話』속의 語와 意>

| 章 | 용어 | 인용시 | 어구 |
|-----|-------------|--|-------------------------------|
| 上 4 | 詞意, 語 | 金富軾, <結綺宮> <燈夕> 鄭知常, <開聖寺八尺房> <題登高寺> <長源亭> | 詞意嚴正典實 / 鄭詩語韻清華 |
| 上 7 | 辭, 意 | 陳灌, <春晚> 趙退菴, (未詳) 李白, <北風行> <秋蒲歌> 蘇軾, <觀崔白冬景圖> | 是不可以辭害意, 但當意會爾. |
| 上 8 | 語, 意, 詞, 詞意 | 金克己, <醉時歌> 杜甫, <前出塞> 黃庭堅, <送王郎> | 語甚豪壯挺傑 其意本少陵 / 其詞本涪翁 / 雖用二家詞意 |

| | | | |
|------|------|--|------------------------|
| 上 15 | 意, 語 | 崔斯立, <待人> 白元恒, <行到祖江有作> | 白詩意好, 然造次立語 |
| 上 17 | 語 | 韓子蒼, <題明皇上馬圖> 張祐, (未詳) 李奎報, <剪髮> <楊妃吹玉笛> <辟寒犀> 羅隱, <馬嵬坡> | 語雖工, 非仁人君子之言 |
| 上 18 | 語 | 崔致遠, <春曉偶書> 吳學鱗, <重遊九龍山興福寺> 朱悅, <清風客舍寒碧軒> 李奎報, <春日同俠客遊> | 高麗人好用是語 / 畢竟定非佳語 |
| 上 21 | 詞, 語 | 蘇軾, “題楊州竹西寺” 李穡, <寄省郎諸兄> | 然微詞隱語 / 朝議以語涉不遜 |
| 上 22 | 意 | 李奎報, <送春吟> 趙云佐, <送春日別人> | 各有意態, 老健奇絕 |
| 上 23 | 詞意 | 崔灑, <四皓歸漢> 趙子昂, “四皓” | 雖詞意不同, 而未句如出一手. |
| 上 27 | 詞 | 杜甫, <枯栢行> 金之岱, <瑜伽寺> | 是殆失之於詞爾 |
| 上 31 | 詞語 | 丁謂, “應製賞花釣魚” 白元恒, <春日次白清謀禁池之作> | 詞語玲瓏圓轉可愛 |
| 上 33 | 詞語 | 李仁老, <山市晴嵐> 李混, <西京永明寺> 李奎報, <憩聊城驛次壁上詩韻> | 然相國詞語, 重複未圓 |
| 上 34 | 語 | 李仁復, <送柳思菴> | 蓋明哲之語, 非時君所樂聞. |
| 上 39 | 語, 意 | 宋莒公, “落花” 宋祁, “落花” 余靖, “落花” 金垵, <落梨花> 天水寺壁詩, “落花” | 然金詩語工而意淺, 天水詩意深而語滯 |
| 上 41 | 語 | 李奎報, <興天寺江上偶吟> 邢君紹, <永明寺浮碧樓> 達全, <禪源寺清遠樓> | 前輩好用是語, 全詩并用回文體, 語少牽強 |
| 上 42 | 語, 詞 | 道潛, <秋江> 王氏, (未詳) | 語頗清絕 / 自與古人詩語相合, 其哀怨之詞 |
| 上 45 | 語 | 洪子藩, <朝天上馬> 韓宗愈, <漢陽村莊> 權近, <到陽村> 李崇仁, <驪江樓留別金若齋次韻> 杜牧, <途中一絕> | 後人祖其語, 致此屋下架屋也. |
| 上 46 | 語 | 李穡, <天壽節入觀大明殿> 姜淮伯, <奉天殿早朝> | 詩家多用富貴綺麗之語 |
| 上 48 | 意思 | 俞升旦, <穴口寺> 陶潛, <桃花源詩> 唐人, (未詳) | 古人有此等意思, 但俞之樵點自妙. |
| 上 57 | 語 | 李穡, <滕王閣圖> 唐人, (未詳) | 此老政用此語, 而無斧鑿痕, 真妙手也 |
| 上 58 | 詞意 | 李承休, “詠雲詩” 奉忠, “贈章惇夏雲詩” | 李詩實祖於忠, 詞意俱圓 |
| 上 63 | 意, 言 | 李仁老, <書天壽僧院壁> 韓愈, <贈同遊> | 含不盡之意, 見於言外 |
| 上 65 | 語 | 鄭谷, “宿平康里有詩” 李穡, <次韻田御史祿生> 權躡, (未詳) 圓鑑國師, (未詳) | 老髯亦有自負之語 |
| 上 66 | 語, 意 | 王昌齡, <閨怨> 高兆基, <寄遠> | 無一語及乎燕昵之私, 隱然有國風之遺意 |

| | | | |
|------|--------|--|---|
| 上 67 | 語, 意 | 陳渾, <月溪寺樓上初晴晚眺> 李齊賢, <延祐己未……> 王安石, <寫真> | 古人詩, 多用佛家語 / 未若陳之意新而語奇 |
| 下 3 | 詞語 | 鄭知常, <西都> 陳渾, <京都> | 詞語清新美麗 |
| 下 9 | 語 | 林椿, <謝見訪> 盧永綏, <投某官> 李集, <贈鄭三峰> <漢陽途中> <立秋日寄敬之> 柳方善, <奉懷水翁> | 自古窮人之語, 皆枯寒瘦淡 |
| 下 12 | 語 | 錢起, <湘靈鼓瑟> 有生, <夏雲多奇峰> | 雖帶髻椎語, 亦是驚句. |
| 下 14 | 語 | 李堅幹, <奉使關東聞杜鵑> 尹汝衡, <關東旅夜> 崔元祐, <送僧> 曹係芳, <山居> | 前輩詩用子規, 語多清絕. |
| 下 15 | 意 | 田濡, <赴任公州> | 其造意之妙自然 |
| 下 16 | 詞 | 李吉祥, <自警> | 如孟郊賈島, 以寒瘦枯淡之詞, 爲奇警. |
| 下 24 | 意 | 杜甫, <秋日荆南……> 金久罔, “送僧詩” 李穡, <有懷東亭> | 以一對雙亦奇, 何害其用古意也. |
| 下 25 | 詞, 言 | 權近, <弁韓> <大同江> | 詞理精到, 不加點綴 / 人臣之言當如是. |
| 下 26 | 詞語 | 李藏用, <三角山殊寺> 李需, <普門寺> 趙永仁, <扈從安和寺應製> | 詞語險僻, 然亦氣健可尚. |
| 下 31 | 語意, 詞語 | 尹澤, <元巖宴集次黃檜山韻> 成石礪, <訪騎牛子不遇> | 語意濃贍雄麗 / 詞語豪宕俊逸 |
| 下 40 | 意 | 翁施龍, “鑑湖詩” 鄭以吾, <次茂豐縣壁上韻> | 與翁詩意同, 頗含譏諷 |
| 下 42 | 語 | 李奎報, <辛酉五月……> 韓駒, <夜泊寧陵> | 言順字穩, 以爲佳對. |
| 下 44 | 語意, 意 | 范希文, <江上漁者> 金克己, <漁翁> 蔡粹然, (未詳) | 語意深遠 / 卽此意. |
| 下 45 | 辭 | 文天祥, <重陽又三絕> 金莘尹, <庚寅重九> | 慷慨憂憤之辭, 甚於金老. |
| 下 46 | 意, 語 | 趙浚, <安州懷古> 祝孟獻, “次韻” | 盖有譏隋唐之意, 造語奇特. / 盖反趙意 |
| 下 47 | 辭, 意 | 李存吾, <從便後贈弟存斯> 陳瑾, <將赴沃州漢江船上用華嚴信聰師韻> 吳洵, <觀稼亭> 崔瀛, <雨荷> 辛藏, <臥水木橋> 李那, <寄子安命> | 無孤臣怨謫之辭, 有警戒規箴之意. / 有陳誠稼穡艱難之意 / 有譏諷不廉之意 / 有自警之辭 / 有父子勸誡之意 |
| 下 51 | 意, 詞 | 成齊堂, “題子陵臺詩” 白文節, <光武> | 正視雲臺爭似釣臺高之意 / 古之詩人立意措詞 |
| 下 52 | 意 | 崔瀛, <太公釣周> | 有反其意而用之者 / 反其意而用之能反古人意自出機軸, 格高律新. |
| 下 53 | 語 | 李崇仁, <寄齋齋> 柳方善, <奉酬北青教授金同年久罔> 李嘉祐, <句> | 王維唐賢之傑然者也, 然喜用古語 |

| | | | |
|------|---------|---|--|
| 下 54 | 詞語 | 王伯, <山居春日> 蘇軾, <吉祥寺賞牡丹> | 詞語玲瓏, 氣象舒閑. |
| 下 55 | 辭 | 周氏, “贈夫孀陳筑詩” “春晴詩” 鄭氏, (未詳) | 其辭氣婉順, 眞女子之詩也. |
| 下 58 | 言意 | 洪覺範 “一聯” 千峯雨, “一聯” | 然談論禪旨, 隱然於言意之表者, 盖寡. |
| 下 61 | 語意 | 朴致安, <興海鄉校月夜聞老妓彈琴> 鄭樞, <老妓> | 語意雄深, 眞傑作也. |
| 下 66 | 意, 語 | 天使, (未詳) 李穡, <驪興清心樓題次韻> 韓脩, <自神勒寺至驪興樓次板上韻> 梵齡, (未詳) 鄭夢周, <題驪興樓> | 山外山意好, 其曰水中水, 則前輩無此等語, 語頗牽強. / 語峻壯 / 語典實 / 語清絕 |
| 下 70 | 詞語, 語 | 金得培, <題金海客舍> 田祿生, <題合浦營> 鄭地, <題錦江船亭> | 其詞語豪壯傑特, 大丈夫之立語, 固不當如是乎! |
| 下 75 | 語, 言, 意 | 崔恒, <送金晦叔還鄉> 李永瑞, <送金翰林係熙以親老休官歸金海> | 語奇巧 / 後句言遠而意深 |

Ⅲ. 語와 意

語와 意는 사실상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를 논하면서 語와 意를 언급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는데, 『書經·虞書』 편의 「舜典」에 “시는 뜻을 말한 것이다(詩言志).¹²⁾”라는 기록이 보이며, 『毛詩序』에서는 “시라는 것은 뜻이 가는 것이며,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나타내면 시가 된다(詩者, 志之所之, 在心爲志, 發言爲詩).”라고 하여 語와 意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字意的 구성을 보아도 ‘意’는 ‘音’과 ‘心’이 결합된 會意字인데, 고대에 ‘音’은 ‘言’과 같은 글자였으므로, 결국 ‘意’는 ‘言’에 ‘心’이 결합된 글자로서 말[言]이 마음[心]에서 생겨남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이처럼 語와 意는 서로 결합하면서 한 편의 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나누어 살펴보고, 그 뒤에 양자 간의 관계를 따져보

12) 여기서의 言과 志는 본고에서 말하는 語, 意와 같은 개념이다.

13) 김연주, 「意」의 회화 미학적 구현, 『美學·藝術學研究』 제22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 194-195쪽 참조.

록 한다.

1. 語가 쓰인 경우

『동인시화』에서 語와 함께 다루어야 할 용어로 言, 詞, 辭, 詞語¹⁴⁾가 있다. 이들 역시 語와 통용되어 나타나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語, 言, 詞, 辭, 詞語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핀다.

1-1.

내가 일찍이 羅隱의 “불옥산 머리의 들풀은 봄빛 자랑하는데, 양귀비의 가벼운 뼈 여기에 먼지 되었네. 예로부터 절세미인 끝내 얻기 어려웠으니, 중원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미인이 아니라네(佛屋山頭野草春, 貴妃輕骨此爲塵. 從來絕色終難得, 不破中原不是人.)”라는 시를 읽었는데, 말[語]이 비록 공교로우나 仁人 군자의 말은 아니다.¹⁵⁾

“말[語]이 비록 공교로우나”라고 하였는데, 이는 작자가 구사한 표현이 공교롭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구가 그러한데 ‘중원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미인이 아니라네(不破中原不是人)’라는 표현은 독특하고 기발하긴 하지만, 仁人 군자의 말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처럼 여기서의 語는 ‘작자의 표현¹⁶⁾’이란 의미로 쓰였으며, 전체 시구를 대상 범위로 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는데, 몇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14) 詞가 ‘詞’라는 문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예가 있는데, 이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15) 『東人詩話』上 17. “予嘗讀羅隱詩, 佛屋山頭野草春, 貴妃輕骨此爲塵. 從來絕色終難得, 不破中原不是人. 語雖工, 非仁人君子之言.”

16) ‘표현’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현이란 사물이나 정신의 내적인 본질을 객관화하여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표현에는 주관적 감정을 객관화하는 표출과 내적 표상이 지각되는 형태를 통일적인 형식 법칙을 가진 작품으로 나타내는 묘사라는 두 가지 계기가 포함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 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1074쪽 참조.

같다.

뫏땅 출신의 스님 道潛의 시에 “노 젓는 소리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 오니, 어느 곳 강촌 사람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지(數聲柔櫓蒼茫外, 何處江村人夜歸.)”라고 하였는데, 말[語]이 자못 맑고 빼어나다.¹⁷⁾

文景公 趙永仁의 <安和寺>시에, “앞의 샘물은 은하수에 통해 있어 張騫이 다녀간 듯하고, 뒤의 산은 하늘을 받치고 있어 杞나라 사람 근심 없네(前泉通漢騫應路, 後岳支天杞不憂.)”라고 하였는데, 말[詞語]이 험박하지만 또한 기이하고 굳세어 숭상할 만하다.¹⁸⁾

내가 일찍이 文順公 李奎報의 시를 좋아하였는데 그 시에, ‘옷깃을 헤 치니 북풍 시원하게 불어오고, 안석에 기대니 해는 절로 서쪽을 향하네(披襟快得風來北, 隱几從教日向西.)’라 한 것은 말[言]이 순하고 글자가 온건하여 아름다운 대구라고 생각했다.¹⁹⁾

옛날 여인들 가운데 중국의 蔡琰·班婕妤·薛濤 같은 이들은 그 시문의 문체가 공교롭고 아름다워 문사들과 겨룰만하였다. 崇寧 연간에 창기 출신인 周氏가 남편 陳筑에게 준 시에 “꿈속에 조각달 따라 누대 서쪽을 지났는데, 달이 누대 서쪽을 지나자 꿈도 이미 흥미해지네. 애끓는 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니, 꽃 진 가지 위에 자고새 우는구나(夢和殘月過樓西, 月過樓西夢已迷. 喚起一聲腸斷處, 落花枝上鷓鴣啼.)”라고 하였고, 또 봄의 갠 날을 읊은 시에 “별안간 날아가는 것은 뉘집 제비이며, 홀연히 날아오는 것은 어느 곳에 핀 꽃인가? 고요한 정원에 해는 길고 한가롭기만 한데, 한 병의 봄물로 스스로 차를 끓인다네(瞥然飛過誰家燕, 鷲地香來甚處花. 深院日長無個事, 一瓶春水自煎茶.)”라고 하였으니, 말[辭]의 기운이 곱고 순하여서 진실로 여자가 지은 시라 하겠다.²⁰⁾

17) 『東人詩話』 上 42. “吳僧道潛詩, 數聲柔櫓蒼茫外, 何處江村人夜歸. 語頗清絕.”

18) 『東人詩話』 下 26. “趙景文永仁安和寺詩, 前泉通漢騫應路, 後岳支天杞不憂. 詞語險僻, 然亦奇健可尚.”

19) 『東人詩話』 下 42. “予嘗愛李文順詩, 披襟快得風來北, 隱几從教日向西. 言順字穩, 以爲佳對.”

20) 『東人詩話』 下 55. “古之閨秀, 如蔡琰班婕妤薛濤之輩, 其詞藻工麗, 可與文士頡頏.”

語, 詞語, 言, 辭가 쓰였다. 모두 ‘작자의 표현’이란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文昌侯 崔致遠의 시에 “정을 머금은 아침 비는 가늘게 가늘게 내리고, 농염한 한가로운 꽃은 필 듯 말 듯(含情朝雨細復細, 弄艷閑花開未開.)”이라고 하였는데, 고려 사람들은 이러한 말[語]을 즐겨 사용했다.²¹⁾

“이러한 말[是語]”이라 하였는데 뒤에도 “院院古非古, 僧僧知不知.”, “幽花浥露落未落, 輕燕受風斜復斜.”와 같은 예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말’은 각 구의 後3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즉, “細復細”, “開未開”와 같은 시어의 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語는 ‘시어의 운용’, 혹은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上 41에서도 확인된다.

平章事 李奎報의 시에, “푸른 물 하늘에 닿은 듯 하늘이 물에 닿은 듯, 얇은 구름이 안개인 듯 안개가 구름인 듯(碧水接天天接水, 薄雲如霧霧如雲.)”이라고 하였고, (……) 스님 達全의 시에, “들이 산을 감싸안은 듯 산이 들을 감싸안은 듯, 하늘이 물을 삼킨 듯 물이 하늘을 삼킨 듯(野抱山還山抱野, 天吞水亦水吞天.)”이라고 하였다. 선배들이 이러한 말[語]을 즐겨 썼는데, 달전의 시는 回文體를 사용하여 말[語]이 다소 억지스럽다.²²⁾

崇甯間, 娼家周氏贈夫婿陳築詩, 夢和殘月過樓西, 月過樓西夢已迷. 喚起一聲腸斷處, 落花枝上鷓鴣啼. 又春晴詩, 瞥然飛過誰家燕, 鶯地香來甚處花. 深院日長無個事, 一瓶春水自煎茶. 其辭氣婉順, 眞女子之詩也.”

21) 『東人詩話』 上 18. “崔文昌詩, 含情朝雨細復細, 弄艷閑花開未開. 高麗人好用是語.”

22) 『東人詩話』 上 41. “李平章奎報詩, 碧水接天天接水, 薄雲如霧霧如雲. 邢典書君紹詩, 遠岫似云云似岫, 碧天如水水如天. 僧達全詩, 野抱山還山抱野, 天吞水亦水吞天. 前輩好用是語, 全詩並用回文體, 語少牽強.”

뒤의 語는 ‘작자의 표현’을 가리키고, 앞의 語가 ‘시어의 운용’, 혹은 ‘표현 방식’을 가리킨다. 이처럼 같은 용어가 한 항목 내에서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

1-3.

相國 李奎報의 <沙平院>시에 “역리들의 보내고 맞는 일 어느 날에나 그치려나, 사신들의 행차 쉴 적이 없네(郵吏送迎何日了, 使華來往幾時休)”라고 하였다. 李仁老·李混·李奎報 세 사람의 시구 짓는 법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규보의 말[詞語]은 중복되어 원만치 못하니 마땅히 항복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²³⁾

인용된 시를 보면 “送迎”과 “來往”, “何日”과 “幾時”, “了”와 “休”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글자들로 대구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詞語는 ‘시어’, 즉 ‘시 속에 사용된 어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는 上 7, 上 27, 上 34, 下 53에서도 확인된다. 두 가지 경우만 보겠다.

英憲公 金之岱의 <洛山寺>시에, “구름 사이 깎아지른 비탈길 칠팔 리요, 하늘 끝 먼 산봉우리 천만 겹이어라(間絕磴七八里, 天末遙峯千萬重.)”라고 하였다. 그가 ‘천만 겹’이라 한 것은 그럴 듯하지만, 깎아지른 비탈길을 ‘칠팔 리’라고 지칭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아마도 말[詞]에서 실상을 잃은 듯하다.²⁴⁾

思菴 柳淑이 연로하여 퇴직을 주청하고 瑞城으로 돌아가게 되자 侍中 樵隱 李仁復이 송별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인간 세상은 기름불로 날마

23) 『東人詩話』 上 33. “李相國沙平院詩, 郵吏送迎何日了, 使華來往幾時休. 三李句法相似, 然相國詞語重複未圓, 當豎降幡.”

24) 『東人詩話』 上 27. “金英憲之岱洛山寺, 雲間絕磴七八里, 天末遙峯千萬重. 其曰千萬重則然矣, 絕磴指稱曰七八里, 何耶? 是殆失之於詞爾.”

다 서로 지저대는데, 그대처럼 명철하신 분 역사에 전해지리(人間膏火日相煎, 明哲如公史可傳.) (下略)”라고 하였으니 당시에 걸작으로 꼽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사암이 逆臣 辛旽의 손에 죽었다. 논자들이 이를 두고 말하기를 “필시 초은의 시가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마도 ‘明哲’이란 말(語)은 당시 임금에게는 좋게 들렸을 리 없고, ‘五湖’라는 두 자가 마침내 노여움을 산 것이다.²⁵⁾

이러한 예들은 넓은 범주로는 ‘작자의 표현’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시어(시 속의 어휘)’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다루었다. 詞語, 詞, 語가 ‘시어’를 의미하는 용어로 차이 없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2.意在 意가 쓰인 경우

意는 시에 나타난 작자의 주관적 사상·감정·개성·취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志와 상통한다.²⁶⁾ 앞에서 보았듯이 뜻[意]을 말한 것이 곧 시인데, 『동인시화』에서는 이意在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2-1.

文順公 李奎報의 <送春>시에 “봄이 저물어 장차 돌아가려 하노니, 아득히 멀리 어디로 가려는지. 봄은 꽃만 거두어 돌아갈 뿐 아니라, 사람의 고운 얼굴마저 빼앗아 가는구나. 떠나기 좋아하는 청춘은 다시 돌아보지 않으니, 사람에게 박정하기를 누가 너 같으리(春向晚送將歸, 杳杳悠悠適何處. 不唯收拾紅花歸, 兼取人間渥丹去. 好去青春莫回首, 與人薄情誰似汝.)”라고 했다. 石澗 趙云乞의 <송춘>시에 “귀양 온 벼슬아치 상심하여 눈물 흘리니, 봄을 보내고 또 돌아가는 사람 전송하네. 봄바람아 잘 가고 머물 생각 마라, 인간 세상 오래 머물면 시비만 배울 뿐이라

25) 『東人詩話』 上 34. “柳思庵淑, 乞骸歸老瑞城, 樵隱李侍中仁復送詩云. 人間膏火日相煎, 明哲如公史可傳. (……) 時推爲傑作. 然未幾思庵死於逆旽之手. 論者以謂, 未必非樵隱之詩爲崇. 蓋明哲之語, 非時君所樂聞, 五湖二字, 適犯其怒.”

26) 최영은, 「益齋의 文學批評 研究」, 『고전비평연구 2』, 태학사, 1998. 98쪽 참조.

네(謫宦傷心涕淚揮, 送春兼復送人歸. 春風好去無留意, 久在人間學是非.)”라고 했다. 이규보의 시는 봄이 가는 것을 애석해 하고 있고, 조운홀의 시는 봄이 떠나갈 것을 권하고 있으니, 각각 다른 뜻[意]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노성하고 힘차며 기이하고 빼어나다.²⁷⁾

이규보의 시에는 이규보의 사상과 감정이 드러나 있고, 조운홀의 시에는 조운홀의 사상과 감정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의 意는 이러한 ‘사상과 감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²⁸⁾ 두 가지 예만 더 보겠다.

孟郊가 溧陽尉로 있을 때 날로 산수간을 오가느라고 공무를 거의 돌보지 않아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獻納 田濡가 공주의 원으로 있을 때 지은 시에 “公事가 구름처럼 많아 귀밑머리 세려 하고, 눈 견힌 강변길에 말 발걸을 더디기만 하네. 사람들은 백성 걱정하는 내 마음 알지 못하고, 산골짜기 거닐며 좋은 시나 찾으려 한다고 잘못 말하네(公事如雲鬢欲絲, 雪晴江路馬遲遲. 吏民不識憂民意, 誤道溪山覓好詩.)”라고 했는데, 뜻[意]을 드러낸 것이 오묘하고 자연스러우며 백성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²⁹⁾

公事に 전심을 쏟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意가 시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의 意는 ‘사

27) 『東人詩話』上 22. “李文順送春詩曰, 春向晚送將歸, 杳杳悠悠適何處. 不唯收拾紅花歸, 兼取人間溷丹去. 好去青春莫回首, 與人薄情誰似汝. 趙石礪雲乞送春詩, 謫宦傷心涕淚揮, 送春兼復送人歸. 春風好去無留意, 久在人間學是非. 李則惜春歸, 趙則勸春歸, 各有意態, 老健奇絕.”

28) “志는 사람의 내면에 담겨있는 정감을 의미하며, 사상과 감정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사상과 감정이 언어를 써서 표현될 때 시라는 문학 장르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志’는 ‘意’와 같은 개념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307쪽 참조.

29) 『東人詩話』下 15. “孟郊調溧陽尉日, 往來山水間, 曹務多廢, 時人譏之. 田獻納濡, 倅公州有詩云, 公事如雲鬢欲絲, 雪晴江路馬遲遲. 吏民不識憂民意, 誤道溪山覓好詩. 其造意之妙自然, 不畔於近民者之責.”

상과 감정'을 모두 포괄한다기보다는 '감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옛사람들이 用事할 때에 그 사실을 바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뜻[意]을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뜻[意]을 뒤집어서 쓰는 것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拙翁 崔瀼의 <太公釣周>시에 “당년에 낚싯대 드리웠으나 낚시에 미늘 없었으니, 고기 낚을 뜻 없었는데 하물며 주나라를 낚겠는가? 마침내 文王을 만난 것은 참으로 우연일 따름이니, 이런 말은 옛사람을 위해 부끄럽도다(當年把釣釣無鉤, 意不求魚況釣周. 終遇文王眞偶爾, 此言吾爲古人羞.)”라고 하였는데, 이는 周나라를 낚은 것은 太公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밝힌 것이다. 옛사람의 뜻[意]을 뒤집어서 스스로 축이 될 만한 생각을 표출하였으니 격이 높고 운율이 참신하다.³⁰⁾

反用法을 설명한 예이다. 최해가 문왕과 태공의 일을 用事하면서 옛사람의 意를 뒤집었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意는 ‘사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2.

辛巳年에 일본을 東征하러 간 중국 사신의 시에, “강물은 맑아 물 속의 물까지 훤히 보이고, 누각은 멀리 트여 산 밖의 산 볼 수 있다네(江清澈見水中水, 樓迥可觀山外山.)”라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구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나의 좁은 견해로는 ‘산 밖의 산(山外山)’은 意象[意]은 좋지만, ‘물 속의 물(水中水)’이라고 한 것은 앞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 자못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 같다.³¹⁾

30) 『東人詩話』 下 52. “古人用事, 有直用其事, 有反其意而用之者. 直用其事, 人皆能之, 反其意而用之, 非材料卓越者, 自不能到. 崔拙翁太公釣周詩, 當年把釣釣無鉤, 意不求魚況釣周. 終遇文王眞偶爾, 此言吾爲古人羞. 蓋發明釣周非太公之本心, 能反古人意, 自出機軸, 格高律新.”

31) 『東人詩話』 下 66. “辛巳日本東征, 天使詩云, 江清澈見水中水, 樓迥可觀山外山. 世稱美句. 以予謏見, 山外山意好, 其曰水中水, 則前輩無此等語, 語頗牽強.”

여기서의 意는 ‘사상과 감정’의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번역도 ‘뜻’이라고 하면 어색해진다. ‘意象’이라 번역하였는데, ‘의상’이란 ‘意中の 象’, 즉 ‘생각 속의 형상’이란 의미이다. 현대 시학의 이미지(image)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物象이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다듬어져 시 속에서 형상화된 것이 ‘의상’이다.³²⁾ 袁行霈는 이렇게 설명한다. “意境의 범위는 비교적 커서 보통 시 한 수 전체, 몇 구절 혹은 한 구절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빚어진 예술적 경계를 가리키고, 意象은 바로 그러한 시의 의경들을 구성하는 몇 개의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상의 상이 개별적인 사물이라면 의경의 경은 도달한 품격이다.”³³⁾ 이렇게 보자면 인용된 ‘산 밖의 산(山外山)’은 의상의 개념에 잘 부합한다. 意가 ‘의상’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語와 意가 함께 쓰인 경우

(1) 한 단어처럼 쓰인 예

語와 意가 한 단어처럼 쓰인 예는 詞意, 語意, 言意가 있다. 意語, 意詞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용어가 ‘말과 뜻’의 의미로 쓰였는가, 아니면 ‘말의 뜻(이 경우라면 意와 동의어)’이란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용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3-1-1.

나는 일찍이 拙翁 崔瀧의 <四皓>시를 좋아하였는데, 그 시에 “한고 조 기이한 계책으로 제왕의 공업 세우니, 호걸 부리기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네. 가련쿠나 흰머리 상산의 늙은이들, 그들마저 유후의 술책에 빠져 버렸네(漢用奇謀立帝功, 指麾豪傑似兒童. 可憐皓首商山老, 亦墮留

32) 하정승, 「陶隱 李崇仁 詩의 意象과 美意識의 表出樣相」, 『東方漢文學』 제27집, 동방한문화회, 2004. 10쪽 참조.

33) 袁行霈, 강영순 외 역, 『중국시가예술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96쪽 참조.

侯計術中.)”라고 하였다. 學士 趙子昂의 <四皓>시에 “상산의 흰 머리 네 늙은이, 紫芝歌 끝내고 솔바람 소리 들었네. 반평생을 인간사에 관여 치 않더니, 그들마저 유후의 술책에 빠져 버렸네(白髮商君四老翁, 紫芝歌罷聽松風. 半生不與人間事, 亦墮留侯計術中.)”라고 하였다. 비록 詞意³⁴⁾는 같지 않지만 마지막 구는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다.³⁵⁾

최해의 시는 한고조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선 말하고는 상산의 늙은이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조자양은 시는 처음부터 상산의 늙은이 이야기로 시작한다. 애초에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표현의 차이가 아닌 사상의 차이이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다는 마지막 구 역시 표현의 유사함보다는 표현 속에 담긴 사상의 유사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詞意는 말의 뜻, 즉 意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下 31, 下 61에서도 확인된다.

文貞公 栗亭 尹澤이 은퇴하여 錦州에 기거하며 80여 세를 살았다. 黃檜巖에게 부친 시에 “소년 시절 沈香亭의 꽃 아래서 취하여, 곧바로 清平詞 지어 올리니 광채가 빛났다오. 늙어 노쇠한 지금 武庫를 보니, 오직 붉은 번개와 맑은 서리만 남아있네(少年花下醉沈香, 立進清平光焰長. 潦倒如今看武庫, 唯餘紫電與清霜.)”라고 하였는데, 語意가 풍부하고 넉넉하며 웅장하고 아름답다.³⁶⁾

시에 古事가 많이 이용되었다. 沈香亭은 唐나라 궁궐 안에 있는 정자

34) 이 용어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장의 과제이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다. 이하 同.

35) 『東人詩話』 上 23. “予嘗愛拙翁四皓詩, 漢用奇謀立帝功, 指麾豪傑似兒童. 可憐皓首商山老, 亦墮留侯計術中. 趙學士子昂四皓詩, 白髮商君四老翁, 紫芝歌罷聽松風. 半生不與人間事, 亦墮留侯計術中. 雖詞意不同, 而末句如出一手.”

36) 『東人詩話』 下 31. “栗亭尹文貞公澤, 退居錦州, 壽八十餘, 寄黃檜岩詩, 少年花下醉沈香, 立進清平光焰長. 潦倒如今看武庫, 唯餘紫電與清霜. 語意穠瞻雄麗.”

의 이름이며, 당 현종이 양귀비와 침향정 아래에서 모란꽃을 감상하다가 이백에게 새로운 가사를 짓게 하니 이백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불려 들어와 淸平詞 3수를 지어 바쳤다는 고사가 있다. 또, 한유의 <調張籍>에 “이백과 두보의 문장이 남아 있으니, 광채가 만 길에 드리웠네(李杜文章在, 光焰萬丈長.)”라는 대목이 있다. 결국, 시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음을 자부한 것이다.

“潦倒”는 두보의 <夔府書懷>중 “모습이 참으로 늙고 노쇠하였구나(形容眞潦倒.)”에서 따온 것이며, “紫電與淸霜”은 왕발의 <騰王閣序>에 “붉은 번개와 맑은 서리 같은 왕장군의 武庫라네(紫電與淸霜, 王將軍之武庫.)”를 인용한 것이다. ‘武庫’는 용맹한 장수를 뜻하며, 붉은 번개와 맑은 서리 같다는 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 창칼을 의미한다. 즉, 자신은 늙고 노쇠하였지만 아직 강개한 기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 시는 여러 고사들을 이용해 뜻이 더욱 풍부해졌다. 고사를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시인데 그만큼 意가 부각된 시이다. 여기서의 語意가 말의 뜻, 즉 意의 의미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朴致安은 일찍이 시로써 명성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여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번은 잠시 寧海郡을 유람하다가 늙은 기생이 달빛 아래에서 거문고를 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처연하였다. 이를 두고 시를 짓기를 “칠보단장한 방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시절에, 백발로 황량한 변방에서 늙어 갈 것 어찌 알았으랴. 長門賦 살 돈 없어, 부질없이 錦字詩 전하는 꿈만 꾸네. 구슬 같은 눈물 몇 번이나 비단 소매 적셨던가, 향기는 아직도 越羅衣에 젖어드네. 깊은 밤 달 밝은 창가에서 괴로이 거문고 타며, 다만 평생에 鍾子期가 없는 것을 한하노라(七寶房中歌舞時, 那知白髮老荒陲. 無金可買長門賦, 有夢空傳錦字詩. 珠淚幾霑吳練袖, 熏香獨襲越羅衣. 夜深窓月絃聲苦, 只恨平生無子期.)”라고 했다. 語意가 크고 깊으니 참으로 걸작이다.³⁷⁾

37) 『東人詩話』 下 61. “朴生致安, 早有詩聲, 屢舉不中, 居常怏怏. 薄遊寧海郡, 聞老妓月下彈琴, 聲甚淒咽, 有詩曰, 七寶房中歌舞時, 那知白髮老荒陲. 無金可買長門

앞서 본 시와 마찬가지로 고사가 풍부하게 활용되었다. ‘長門賦³⁸⁾’, ‘錦字詩³⁹⁾’, ‘越羅衣⁴⁰⁾’, ‘鍾子期⁴¹⁾’가 모두 그러한 예로써 이 시어들 속에 깃든 고사 때문에 시의 뜻이 그만큼 크고 깊어진다. 여기서의 語意 또한 意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2.

動安居士 李承休의 <詠雲>시에 “한 조각 구름이 겨우 진흙사람 위에서 일더니, 곧 동서남북으로 퍼져 가네. 장마비가 되어 매마른 생명들을 소생시키라 했는데, 부질없이 중천의 밝은 해와 달을 가리는구나(一片才從泥上生, 東西南北便縱橫. 謂爲霖雨蘇群稿, 空掩中天日月明.)”라고 했으니 자못 기풍과 풍자를 담고 있다. (……) 내가 일찍이 奉忠스님의 <贈章惇夏雲>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에 “봉우리인 듯 불인 듯 다시 숨인 듯, 나는 듯이 지나가는 열은 그늘이 난간 앞에 드리웠네. 대지에는 생명들 말라 죽으려 하는데, 장마비 되어 내리지 않고 하늘만 가리네(如峰如火復如綿, 飛過微陰落檻前. 大地生靈乾欲死, 不成霖雨謾遮天.)”라고 하였다. 이승휴의 시는 실로 봉충의 시에 근본을 두고 있지만, 그 詞

賦, 有夢空傳錦字詩. 珠淚幾霑吳練袖, 熏香獨襲越羅衣. 夜深窓月絃聲苦, 只恨平生無子期. 語意雄深, 眞傑作也.”

- 38) 長門賦 : 漢나라 武帝의 妃 陳皇后가 총애를 잃고 長門宮에 있을 때, 司馬相如를 불러 황금 백 근과 술을 주며 자신의 심정을 글로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마 상여가 황후의 쓸쓸하고 비참한 심정을 읊어 글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문 부이다. 무제가 이 글을 보고 다시 진황후를 총애하였다고 한다.
- 39) 錦字詩 : 『侍兒小名錄』에, 前秦의 竇綽가 타지로 벼슬살이를 갈 때, 애첩 趙陽臺를 데리고 가고 본부인 蘇氏와 소식을 끊었다. 이에 소씨가 남편의 사랑을 비는 廻文詩 2백여 수를 비단에 수놓아 두도에게 부치니, 두도가 마음을 돌려 소씨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 40) 越羅衣 : 越나라에서 나는 비단으로 만든 옷을 말한다. 後漢의 陸閏이 늘 越羅로 만든 옷을 입으니 光武帝가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이 비단을 바치게 하였다고 한다.
- 41) 鍾子期 : 춘추시대 사람으로 伯牙가 거문고를 연주하면 종자기만이 그 아름다움을 헤아렸다. 뒤에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하여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以上 고사에 관한 주석은 권경상 역주, 앞의 책. 272-273쪽 참조.

意가 모두 원만하다.⁴²⁾

이승휴의 시는 봉충의 시에 근본을 두고 있다 하였는데, 표현도 유사하지만,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고 하여 간신들이 임금의 눈앞을 가리고서 힘겨워하는 백성들을 구제하진 못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음’을 말한 뜻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승휴의 시는 詞意가 모두 원만하다고 하였으니, 봉충의 시는 그렇지 않지만 이승휴의 시는 말과 뜻이 모두 원만하다고 평한 것이다. “詞意俱圓”이라 하여 “俱(함께 구)”라는 글자를 쓴 것을 보아도 여기서의 詞意는 ‘말과 뜻(표현과 사상)’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구분되어 쓰인 예

3-2-1.

文貞公 金坵의 시에 “춤추듯 나부끼며 날아오르다 다시 되돌아오고, 거꾸로 날리어 다시 가지 위에 올라 꽃피우려는 듯. 까닭 없이 꽃 한 잎 실그물에 붙으니, 때마침 거미가 나비인 줄 알고 잡으러 오는구나(飛舞翩翩去卻回, 倒吹還欲上枝開. 無端一片粘絲網, 時見蜘蛛捕蝶來.)”라고 하였고, 또 송도의 天水寺 벽에 낙화를 읊은 시에 “비 맞아 무정히 떨어지더니, 바람 타고 올라 되돌아가려 하는구나. 시내에 비친 천만 꽃가지들, 도리어 활짝 꽃피운 것 한스러워한다네(帶雨無情墮, 乘風作意回. 映溪千萬朵, 却恨十分開.)”라고 하였다. 이 두 시를 거공을 비롯한 여러 시인의 작품에 견주어보면 아득히 멀어 미칠 수 없다. 그런데 김구의 시는 말[語]이 공교롭긴 하나 뜻[意]이 얇고, 天水寺에 있는 시는 뜻[意]은 깊으나 말[語]이 막혀 있으니 시를 좋아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42) 『東人詩話』 上 58. “動安居士李承休詠雲詩, 一片才從泥上生, 東西南北便縱橫. 謂爲霖雨蘇群稿, 空掩中天日月明. 頗含譏諷. (……) 予嘗見僧奉忠, 贈章惇夏雲詩, 如峰如火復如綿, 飛過微陰落檻前. 大地生靈乾欲死, 不成霖雨謾遮天. 李詩實祖於忠, 而詞意俱圓.”

43) 『東人詩話』 上 39. “金文貞坵詩, 飛舞翩翩去卻回, 倒吹還欲上枝開. 無端一片粘絲網, 時見蜘蛛捕蝶來. 松都天水寺壁, 亦詠落花云, 帶雨無情墮, 乘風作意回. 映溪千

語와 意를 분명히 구분하여 시를 평하고 있다. 시를 보자면 김구의 시는 표현은 화려하고 재치있으나, 담긴 뜻이 없어서 사상이 얕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천수사 벽의 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담겨 있어 사상은 깊지만, 표현이 평이하고 궁색하여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語는 ‘표현’의 의미로, 意는 ‘사상’의 의미로 각기 변별되어 시가 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도 같은 용법을 보여준다.

正言 李存吾가 역적 辛旽에게 미움을 사 長沙로 귀양 가며 지은 시에 “미치고 망령된 이 몸 참으로 바닷가에 버려질 만한데, 성은이 하늘같이서 전원에 돌아가도록 하시었네. 초가에서 내 뜻대로 즐겁게 살아가니, 일편단심은 예년보다 갑절이나 더하네(狂妄眞堪棄海邊, 聖恩天大賜歸田. 草廬隨意生涯足, 一片丹心倍昔年.)”라고 하였고, 補闕 陳瑾이 言事로 관직에서 쫓겨나 沃川으로 부임해가며 지은 시에 “백성인 물이 임금인 배를 띄움을 알고자 한다면, 충성을 다하고 편안히 노닐을 경계해야 하리라. 간원에서도 미처 藥石같은 충언 올리지 못했으니, 장사로 좌천된들 근심하지 않으리(欲知民水載君舟, 要盡忠誠誠逸遊. 諫院未能陳藥石, 長沙見謫不須愁.)”라고 하였다. 왕에게 내침을 받은 신하가 좌천되어 감을 원망하는 말[辭]은 없고, 경계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意]이 있다.⁴⁴⁾

인용된 시들에서 원망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계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상’이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辭는 ‘표현’의 의미로, 意는 ‘사상’의 의미로 각기 변별되어 시가 평해졌

萬朵, 却恨十分開. 兩詩方莒公諸作, 邈乎不可及已. 然金詩語工而意淺, 天水詩意深而語滯, 好詩者當辨之.”

44) 『東人詩話』 下 47. “李存吾正言, 忤逆旽, 貶長沙詩, 狂妄眞堪棄海邊, 聖恩天大賜歸田. 草廬隨意生涯足, 一片丹心倍昔年. 陳補闕瑾, 言事落職, 將赴沃川詩, 欲知民水載君舟, 要盡忠誠誠逸遊. 諫院未能陳藥石, 長沙見謫不須愁. 無孤臣怨謫之辭, 有警戒規箴之意.”

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동인시화』에 쓰인 語와 意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語와 意는 『동인시화』 속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나타난다. 서거정이 시를 비평하면서 語·意 개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단순히 語는 ‘말’이고, 意는 ‘뜻’이라고만 이해하면 서거정이 행한 비평의 중요한 국면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서거정은 자신이 사용한 語와 意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으므로 『동인시화』 전체를 살펴보고 서거정이 생각한 語와 意의 개념을 연역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동인시화』에 쓰인 語와 意의 의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語의 의미

『동인시화』에서 語와 함께 다루어야 할 용어로 言, 詞, 辭, 詞語가 있다. 이들 모두 語와 통용되어 나타나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자.

뫼땅 출신의 스님 道潛의 시에 “노 젓는 소리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니, 어느 곳 강촌 사람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지(數聲柔櫓蒼茫外, 何處江村人夜歸.)”라고 하였는데, 말[語]이 자못 맑고 빼어나다.⁴⁵⁾

文景公 趙永仁의 <安和寺>시에, “앞의 샘물은 은하수에 통해 있어 張騫이 다녀간 듯하고, 뒤의 산은 하늘을 받치고 있어 杞나라 사람 근심

45) 『東人詩話』 上 42. “吳僧道潛詩, 數聲柔櫓蒼茫外, 何處江村人夜歸. 語頗清絕.”

없네(前泉通漢騫應路, 後岳支天杞不憂.)”라고 하였는데, 말[詞語]이 험벽 하지만 또한 기이하고 굳세어 승상할 만하다.⁴⁶⁾

모두 ‘작자의 표현’이란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가 가장 많지만, 다르게 쓰인 예도 있다.

文昌侯 崔致遠의 시에 “정을 머금은 아침 비는 가늘게 가늘게 내리고, 농염한 한가로운 꽃은 필 듯 말 듯(含情朝雨細復細, 弄艷閑花開未開.)”이라고 하였는데, 고려 사람들은 이러한 말[語]을 즐겨 사용했다.⁴⁷⁾

“이러한 말[是語]”이라 하였는데 뒤에도 “院院古非古, 僧僧知不知.”, “幽花澗露落未落, 輕燕受風斜復斜.”와 같은 예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말’은 각 구의 後3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즉, “細復細”, “開未開”와 같은 시어의 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語는 ‘시어의 운용’, 혹은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도 보인다.

相國 李奎報의 <沙平院>시에 “역리들의 보내고 맞는 일 어느 날에나 그치려나, 사신들의 행차 쉴 적이 없네(郵吏送迎何日了, 使華來往幾時休.)”라고 하였다. 李仁老·李混·李奎報 세 사람의 시구 짓는 법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규보의 말[詞語]은 중복되어 원만치 못하니 마땅히 항복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⁴⁸⁾

인용된 시를 보면 “送迎”과 “來往”, “何日”과 “幾時”, “了”와 “休”가 중

46) 『東人詩話』 下 26. “趙景文永仁安和寺詩, 前泉通漢騫應路, 後岳支天杞不憂. 詞語險僻, 然亦奇健可尚.”

47) 『東人詩話』 上 18. “崔文昌詩, 含情朝雨細復細, 弄艷閑花開未開. 高麗人好用是語.”

48) 『東人詩話』 上 33. “李相國沙平院詩, 郵吏送迎何日了, 使華來往幾時休. 三李句法相似, 然相國詞語重複未圓, 當豎降幡.”

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글자들로 대구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詞語는 ‘시어’, 즉 ‘시 속에 사용된 어휘’를 의미한다.

이처럼 서거정은 語(혹은, 語와 같은 범주의 용어)를 ‘작자의 표현’, ‘시어의 운용(표현 방식)’, ‘시어(시 속의 어휘)’의 의미로 썼다. 뒤집어 말하면 서거정이 시를 비평할 때 語의 측면에서는 이 3가지 요건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거정의 비평관을 분석하고자 할 때 보다 구체적인 준거점을 제시해주는 의의가 있다.

2. 意의 의미

예부터 보자면,

孟郊가 溧陽尉로 있을 때 날로 산수간을 오가느라고 공무를 거의 돌보지 않아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獻納 田濡가 공주의 원으로 있을 때 지은 시에 “公事가 구름처럼 많아 귀밑머리 세려 하고, 눈 견힌 강변길에 말 발걸음 더디기만 하네. 사람들은 백성 걱정하는 내 마음 알지 못하고, 산골짜기 거닐며 좋은 시나 찾으려 한다고 잘못 말하네(公事如雲鬢欲絲, 雪晴江路馬遲遲. 吏民不識憂民意, 誤道溪山覓好詩.)”라고 했는데, 뜻[意]을 드러낸 것이 오묘하고 자연스러우며 백성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⁴⁹⁾

公事に 전심을 쏟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건만, 사람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意가 시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의 意는 ‘감정’이란 의미로 쓰였다.

49) 『東人詩話』 下 15. “孟郊調溧陽尉日, 往來山水間, 曹務多廢, 時人譏之. 田獻納濡, 倅公州有詩云, 公事如雲鬢欲絲, 雪晴江路馬遲遲. 吏民不識憂民意, 誤道溪山覓好詩. 其造意之妙自然, 不畔於近民者之責.”

옛사람들이 用事할 때에 그 사실을 바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뜻[意]을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뜻[意]을 뒤집어서 쓰는 것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拙翁 崔瀼의 <太公釣周>시에 “당년에 낚싯대 드리웠으나 낚시에 미늘 없었으니, 고기 낚을 뜻 없었는데 하물며 주나라를 낚겠는가? 마침내 文王을 만난 것은 참으로 우연일 따름이니, 이런 말은 옛사람을 위해 부끄럽도다(當年把釣釣無鉤, 意不求魚況釣周. 終遇文王眞偶爾, 此言吾爲古人羞.)”라고 하였는데, 이는 周나라를 낚은 것은 太公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밝힌 것이다. 옛사람의 뜻[意]을 뒤집어서 스스로 축이 될 만한 생각을 표출하였으니 격이 높고 운율이 참신하다.⁵⁰⁾

反用法을 설명한 예이다. 최해가 문왕과 태공의 일을 用事하면서 옛사람의 意를 뒤집었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意는 ‘사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意는 ‘사상’이나 ‘감정’이란 의미로 쓰였는데, ‘사상과 감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보인다.

辛巳年에 일본을 東征하러 간 중국 사신의 시에, “강물은 맑아 물 속의 물까지 훤히 보이고, 누각은 멀리 트여 산 밖의 산 볼 수 있다네(江清徹見水中水, 樓迥可觀山外山.)”라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구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나의 좁은 견해로는 ‘산 밖의 산(山外山)’은 意象[意]은 좋지만, ‘물 속의 물(水中水)’이라고 한 것은 앞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 자못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 같다.⁵¹⁾

50) 『東人詩話』 下 52. “古人用事, 有直用其事, 有反其意而用之者. 直用其事, 人皆能之, 反其意而用之, 非材料卓越者, 自不能到. 崔拙翁太公釣周詩, 當年把釣釣無鉤, 意不求魚況釣周. 終遇文王眞偶爾, 此言吾爲古人羞. 蓋發明釣周非太公之本心, 能反古人意, 自出機軸, 格高律新.”

51) 『東人詩話』 下 66. “辛巳日本東征, 天使詩云, 江清徹見水中水, 樓迥可觀山外山. 世稱美句. 以予謏見, 山外山意好, 其曰水中水, 則前輩無此等語, 語頗牽強.”

여기서의 意는 ‘意象’의 의미로 쓰였다. ‘산 밖의 산(山外山)’이란 의상이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인시화』에서 意는 ‘사상’이나 ‘감정’(혹은 ‘사상과 감정’)이란 의미와 ‘의상’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意’라는 용어가 기본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니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기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데, 이처럼 意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동인시화』 내에 쓰인 意의 용례를 모두 검토하였으며 서거정이 어떠한 의미로 ‘意’라는 개념을 썼는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거정이 시를 비평할 때 意의 측면에서는 ‘사상’, ‘감정’, ‘의상’의 요건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거정의 비평관을 분석하고자 할 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3. 語와 意가 함께 쓰였을 때의 의미

語와 意가 한 단어처럼 쓰인 예로는 詞意, 語意, 言意가 확인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용어가 ‘말과 뜻’의 의미로 쓰였는가, 아니면 ‘말의 뜻(이 경우라면 意와 동의어)’이란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보도록 하자.

나는 일찍이 拙翁 崔滄의 <四皓>시를 좋아하였는데, 그 시에 “한고조 기이한 계책으로 제왕의 공업 세우니, 호걸 부리기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네. 가련쿠나 흰머리 상산의 늙은이들, 그들마저 유후의 술책에 빠져 버렸네(漢用奇謀立帝功, 指麾豪傑似兒童. 可憐皓首商山老, 亦墮留侯計術中.)”라고 하였다. 學士 趙子昂의 <四皓>시에 “상산의 흰 머리 네 늙은이, 紫芝歌 끝내고 술바람 소리 들었네. 반평생을 인간사에 관여치 않더니, 그들마저 유후의 술책에 빠져 버렸네(白髮商君四老翁, 紫芝歌罷聽松風. 半生不與人間事, 亦墮留侯計術中.)”라고 하였다. 비록 詞意⁵²⁾는

52) 이 용어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장의 과제이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다. 이하 同.

갈지 않지만 마지막 구는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다.⁵³⁾

여기에서의 詞意는 말의 뜻, 즉 意의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예도 있다.

動安居士 李承休의 <詠雲>시에 “한 조각 구름이 겨우 진흙사람 위에서 일더니, 곧 동서남북으로 퍼져 가네. 장마비가 되어 메마른 생명들을 소생시키라 했는데, 부질없이 중천의 밝은 해와 달을 가리는구나(一片才從泥上生, 東西南北便縱橫. 謂爲霖雨蘇群稿, 空掩中天日月明.)”라고 했으니 자못 기풍과 풍자를 담고 있다. (……) 내가 일찍이 奉忠스님의 <贈章惇夏雲>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에 “봉우리인 듯 불인 듯 다시 숨인 듯, 나는 듯이 지나가는 열은 그늘이 난간 앞에 드리웠네. 대지에는 생명들 말라 죽으려 하는데, 장마비 되어 내리지 않고 하늘만 가리네(如峰如火復如綿, 飛過微陰落檻前. 大地生靈乾欲死, 不成霖雨漫遮天.)”라고 하였다. 이승휴의 시는 실로 봉충의 시에 근본을 두고 있지만, 그 詞意가 모두 원만하다.⁵⁴⁾

여기서의 詞意는 ‘말과 뜻(표현과 사상)’의 의미로 쓰였다. 이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서거정의 시 비평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또, 올바르게 분별했다 하더라도 語와 意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게 된다. 본고에서는 서거정이 사용한 語와 意의 의미를 앞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지금과 같이 語와 意가 한 단어처럼 쓰인 경우에도 이해의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한편, 語와 意가 함께 쓰였지만 구분되어 나타나는 예가 있다.

53) 『東人詩話』 上 23. “予嘗愛拙翁四皓詩, 漢用奇謀立帝功, 指麾豪傑似兒童. 可憐皓首商山老, 亦墮留侯計術中. 趙學士子昂四皓詩, 白髮商君四老翁, 紫芝歌罷聽松風. 半生不與人間事, 亦墮留侯計術中. 雖詞意不同, 而未句如出一手.”

54) 『東人詩話』 上 58. “動安居士李承休詠雲詩, 一片才從泥上生, 東西南北便縱橫. 謂爲霖雨蘇群稿, 空掩中天日月明. 頗含譏諷 (……) 予嘗見僧奉忠, 贈章惇夏雲詩, 如峰如火復如綿, 飛過微陰落檻前. 大地生靈乾欲死, 不成霖雨漫遮天. 李詩實祖於忠, 而詞意俱圓.”

文貞公 金堦의 시에 “춤추듯 나부끼며 날아오르다 다시 되돌아오고, 거꾸로 날리어 다시 가지 위에 올라 꽃피우려는 듯. 까닭 없이 꽃 한 잎 실그물에 붙으니, 때마침 거미가 나비인 줄 알고 잡으러 오는구나(飛舞翩翩去卻回, 倒吹還欲上枝開. 無端一片粘絲網, 時見蜘蛛捕蝶來.)”라고 하였고, 또 송도의 天水寺 벽에 낙화를 읊은 시에 “비 맞아 무정히 떨어지더니, 바람 타고 올라 되돌아가려 하는구나. 시내에 비친 천만 꽃가지들, 도리어 활짝 꽃피운 것 한스러워한다네(帶雨無情墮, 乘風作意回. 映溪千萬朵, 却恨十分開.)”라고 하였다. 이 두 시를 거공을 비롯한 여러 시인의 작품에 견주어보면 아득히 멀어 미칠 수 없다. 그런데 김구의 시는 말[語]이 공교롭긴 하나 뜻[意]이 얇고, 天水寺에 있는 시는 뜻[意]은 깊으나 말[語]이 막혀 있으니 시를 좋아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語와 意를 분명히 구분하여 시를 평하고 있다. 서거정의 語와 意에 관한 인식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인데, 語는 ‘표현’의 의미로, 意는 ‘사상’의 의미로 각기 변별되어 시가 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전대 시화집에서는 머리말에서 본 것처럼 語·意 개념을 드러내긴 하였으나 단편적인 언급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동인시화』에서는 지금까지 보았듯 구체적인 시가 제시되고 語·意 개념을 활용하여 시를 비평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이처럼 서거정은 시를 비평하면서 語·意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고, 이는 서거정의 비평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5) 『東人詩話』上 39. “金文貞堦詩, 飛舞翩翩去卻回, 倒吹還欲上枝開. 無端一片粘絲網, 時見蜘蛛捕蝶來. 松都天水寺壁, 亦詠落花云, 帶雨無情墮, 乘風作意回. 映溪千萬朵, 却恨十分開. 兩詩方莒公諸作, 邈乎不可及已. 然金詩語工而意淺, 天水詩意深而語滯, 好詩者當辨之.”

흥미로운 점은 전대 시화집에서 語·意 개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동인시화』에서 비중 있게 활용된 반면, 『동인시화』 이후의 시화집들에서는 語·意 개념을 활용한 예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인시화』 이후의 조선 시화집에서 서거정의 시에 관하여 語·意 개념을 적용한 비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동인시화』는 語·意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시화집이라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겠으나, 그만큼 語와 意에 관해 살피고자 할 때 『동인시화』는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텍스트임을 시사해주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동인시화』에 보이는 모든 語와 意의 용례를 검토한 후, 語와 意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語는 ‘작자의 표현’, ‘시어의 운용’(혹은 ‘표현 방식’), ‘시어’의 의미로 쓰였으며, 意는 ‘사상과 감정’, ‘意象’이란 의미로 쓰였음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한편, 語와 意가 한 단어처럼 쓰였을 때에는 대부분 ‘말의 뜻’, 즉 意(사상과 감정)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말과 뜻(표현과 사상·감정)’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음을 보았다. 또한, 語와 意가 함께 쓰였지만 구분되어 나타났을 때에는 語는 ‘표현’의 의미로, 意는 ‘사상과 감정’의 의미로 각기 변별되어 쓰였음을 볼 수 있었다.

연역적으로 도출해낸 이와 같은 결론은 이제 『동인시화』를 보다 엄밀히 독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서거정의 시 비평을 살펴볼 때에 ‘語’와 ‘意’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짚어가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고의 분석은 그러한 작업의 첫 걸음이다.

서거정이 시를 비평할 때에 語의 측면에서는 ‘표현’, ‘시어의 운용’, ‘시어’의 세 측면을 중시하였고, 意의 측면에서는 ‘사상과 감정’, ‘意象’의 두 측면을 중시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서거정의 비평관을 분석하고자 할 때 보다 구체적인 준거점을 제시해주는 의의가 있다.

본고는 『동인시화』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다른 시화집들에

대한 연구를 간과할 수는 없다. 본고의 내용을 발판으로 하여 『동인시화』 외의 시화집들에서는 語와 意가 어떻게 쓰였는지, 『동인시화』와 비교되는 점은 무엇인지, 語와 意라는 개념이 시화 비평사에서 어떠한 계승 관계를 보이며 같거나 달라지는지 등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徐居正, 『(影印本) 東人詩話』, 二友出版社, 1980.

李奎報, 『白雲小說』

李齊賢, 『櫟翁稗說』

崔滋, 『補閑集』

『歐陽修全集』

2. 저서 및 논문

김연주, 「‘意’의 회화 미학적 구현」, 『美學·藝術學研究』 제22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 193-219쪽.

서거정, 권경상 역주, 『東人詩話』, 다운샘, 2003.

서거정, 박성규 역주, 『동인시화』, 집문당, 1998.

서거정, 성백호 역주, 『四佳名著選』, 이회문화사, 2000.

최영은, 「益齋의 文學批評 研究」, 『고전비평연구 2』, 태학사, 1998. 65-114쪽.

하정승, 「陶隱 李崇仁 詩의 意象과 美意識의 表出樣相」, 『東方漢文學』 제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7-32쪽.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郭紹虞 교석, 김해명·이우정 옮김, 『滄浪詩話』, 소명출판, 2001.

袁行霈, 강영순 외 역, 『중국시가예술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鍾嶸, 이철리 역주, 『역주 詩品』, 창비, 2007.

池田魯州 編, 『日本詩話叢書』, 文會堂書店, 1920.

蔡鎮楚 編, 『域外詩話珍本叢書』, 北京圖書館出版社, 2006.

<Abstract>

Eo(語) and *Eui*(意) in 『*DongInSiHwa*(東人詩話)』

Hur, Kyoung-Jin · Park, Soon

In Seo Geo-Jung(徐居正)'s 『*DongInSiHwa*(東人詩話)』, *Eo*(語) and *Eui*(意) concept is used widely and the criticism of poetry is done. The history of recognition in *Eo*(語) and *Eui*(意) has been so long and these concepts revealed from the early stage in poetry criticism in Korea. In 『*DongInSiHwa*』, criticism using *Eo*(語) and *Eui*(意) apply more extensively compare with previous ones. *Eo*(語) and *Eui*(意) is used well with importance like this, it is necessary that we think about how it works as criticism standards and how it is used and expressed. So I start to scrutinize *Eo*(語) and *Eui*(意) in 『*DongInSiHwa*』 through this research.

I suggest all the examples using *Eo*(語) and *Eui*(意) in 『*DongInSiHwa*』 through table which is the first research method. We are able to get a wide view and understanding of the usage and the expression of *Eo*(語) and *Eui*(意) in 『*DongInSiHwa*』 how many times it is used and in which way it is shown. Then I make attempts to approach specifically checking examples of criticism using *Eo*(語) and *Eui*(意). I try to examine like these three, cases only using *Eo*(語), only using *Eui*(意) and using both. After these detailed analyzing, I explain aspects of *Eo*(語) and *Eui*(意) in 『*DongInSiHwa*』 in brief.

Eor(言), *Sa*(詞), *Sa*(辭), *SaEo*(詞語) also used together in the case of *Eo*(語) and these words mean 'writer's expression', 'application of

poetic word(or the way to express)', or 'poetic word(詩語)'. The case of *Eui*(意) means 'thought and emotion', 'image(意象)'. Meanwhile, there is an example of *Eo*(語) and *Eui*(意) is used like one word, mostly it means 'word meaning' that is *Eui*(意, thought and emotion) or 'word and meaning(expression, thought and emotion)' sometimes. Also, there are some cases that *Eo*(語) and *Eui*(意) is used at the same time and reveal separately. In this case, *Eo*(語) means 'expression' and *Eui*(意) means 'thought and emotion' each.

Key Words : 『*DongInSiHwa*(東人詩話)』, *Eo*(語), *Eui*(意), expression, poetic word, thought, emotion, image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